

한자에 새겨진 우리나라 역사 DNA를
이어가려 우리 고전의 보존 및 복원에
힘쓰고 있는 김언중(한국고전번역원장)
동문,저녁이면 칠판 앞에 서는
그의 동력은 무엇일까.



아직도 하숙에 사는 학생들이 있다. 우리신문이 그 모습을 체험을 통해 담아냈다.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대학주보

총장선임제 두고 구성원 의견 수렴 시작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지난 7일 법인 이사회가 제17대 총장선임제 가안을 대학에 전달하고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갔다. 제16대 총장 선임 과정과 비교했을 때 구성원 권한이 대폭 축소된 모델이다. 구성원 의견 수렴은 오는 21일 대학평의위원회(대평의)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개된 문안에는 이사회가 제안하는 총장선출방식이 포함돼 있다. 이사회가 제시한 가안은 ▲A안 ▲B안 ▲C안 3개다. 3개 안 모두 ▲추천·공모 ▲심의·자문 ▲최종후보 선정 ▲의결 단계를 가진다. 추천·공모 단계에서는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구성원이 예비 후보를 직접 추천한다. 추천된 예비 후보는 총장 후보심의위원회(총심위)의 심의·자문 과정을 거쳐 후보 5인으로 압축된다. 이후 5인 중에서 이사회가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한 뒤 의결해 총장 1인을 선임하게 된다.

3개 안의 차이점은 총심위 구성에 있다. A안은 총심위가 5명이며 5명 모두 이사다. B안과 C안은 총심위가 10명이며 5명의 이사와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다만 전문가 5명 구성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B안은 전문가 5명을 모두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C안은 5명의 전문가 중 2명을 이사회에서, 3명은 구성원이 추천한다.

3개 가안 모두 2단계인 심의·자문

부터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 권한이 없다. A안과 B안은 총심위에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대신 총심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성원 자문위원회’를 뒀다. 다만 구성원 자문위원회는 총심위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 A, B, C 안 모두 우리학교 구성원이 예비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총장 후보를 압축하는 방식이다. 후보를 간주리는 심의·자문 과정에 법인 이사회가 동참한다는 점이 제16대 총장선임과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이사회에 따르면 3개 가안은 딜로이트 컨설팅에 자문을 구한 결과다. 딜로이트 컨설팅이 제16대 총장 선임 모델이 가졌던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했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법인 이사회 의사결정 범위 제약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기능 약화 ▲총장 자격 기준 상세화/적용 미흡 ▲후보군 다양화 제약을 문제점으로 판단했다.

가안은 이사회의 제안으로 확정된 최종안은 아니다. 구성원 내부에서 가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이사회와 협의해 모델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수렴 역할은 제16대 총장 선임 과정에 이어 제17대에서도 대평의가 맡았다. 오는 21일, 대평의는 법인의 가안 전달 이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교수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문회 4개 주체가 참여한다. 가안이 구성원이 요구한 방향과 차이가 있어 각 단체를 중심



지난 7일 법인이 발표한 총장 선임제 가안이다.

으로 서로 다른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교수의회는 가안 발표 이전, 구성원 의견이 담긴 ‘제17대 총장선거 관련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법인에 전달한 바 있다. 결과를 토대로 교수의회는 합리적인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법인 관여 최소화를

요구했다.(관련기사 5면) 하지만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인의 가안이 나왔고 교수의회는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재실시했다.

이사회는 오는 27일까지 구성원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대평의에서 논의된 의견은 26일 대의원총회를

거쳐 이사회에 전달된다. 교수의회 김도균 의장은 “16대 총장 선임 과정이 법인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고심을 한 것 같다”며 가안의 배경에 대해 추측했다. 이어 “지난 설문조사(교수-직원 설문) 결과 교수의회 구성원 사이에서는 상반된 평가 나왔다”며 “직선제에서 선임제로 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고, 결국 선임은 법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며 구성원 의견을 요약했다. 법인이 제안한 세가지 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해 이사회의 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교수회의의 생각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 박경규 지부장은 “구성원 단체의 통일된 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았으니, 법인의 17대총장선출방식의 제안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3가지 안에 대해서는 “A안은 70년간 옛날 방식 그대로, B안은 의사결정권한 없는 구색갖추기, C안은 구성원의 1/3미만 간접참여”라고 평가하며 “학원의 민주화라는 교훈이 부끄러운, 최소한의 절차적 학원 민주주의의 퇴행, 역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좋은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가를 얘기하려면, 최소한 지난 16대 총장선출을 통해서 선출된 총장에 대한 평가와 총장선출제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군사관이 부족해요

김권수 기자 okb8888@khu.ac.kr

올해 전반기 육군 학군사관(ROTC)이 사상 최초로 추가모집을 실시했다.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은 1.6대 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군 간부 처우 문제, 복무기간의 차이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육군 ROTC 설치 대학 113교 가운데 79개 대학에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ROTC 후보생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 2020년 2.7대 1, 2022년 2.4대 1로 매해 하락하는 추세다. 우리학교 ROTC 지원자 수 역시 서류접수를 기준으로 2021년 40명, 2022년 27명, 2023년 1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김준호 학군단장은 “올해 군 복무자 처우 문제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병사 월급이 개선된 데 비해 간부 봉급은 개선되지 못해 단기적인 지원율 하락이 나타났다”며 지원 감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요즘 국회에서 군 처우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상황은 좋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학군단장은 복무기간 차이에 대해 “실제 복무기간은 차이가 나지만, 취업까지 드는 시간은 현역병과 큰 차이

가 없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고민한 최인성(국어국문학 2023) 씨는 “장교로 군 복무를 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낭만 있는 캠퍼스 생활을 기회비용으로 사 용하면서 가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4학년 후보생 홍은성(경영학 2020) 씨는 “방학 중 입영 훈련과 필수 안보 교육이 있지만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융통성 있게 조정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사령

명	〈정기자〉
	고도희(사학 2021)
	김윤희(철학 2023)
	임주양(행정학 2023)
	주은서(지리학 2021)
	한주현(정보디스플레이학 2022)
	공예진(체육학 2023)
	노윤지(태권도학 2022)
	배연우(국제학 2022)
	서나은(한국어학 2021)
	조병연(프랑스어학 2018)
	황인찬(건축공학 2023)